

'12년 7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안전품질정책과장 김남정, 배진한 연구사(509-7238)

## 출입문 열쇠로 교통카드·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!

— 교통카드·핸드폰 등록을 해제하고 전용카드 사용하면 안심 —

관련 사업자들 정부측에 자진리콜 약속

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 일부 「디지털도어록」에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지난 6.29(금) 내렸던 소비자주의보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함

○ 당초 문제가 되었던 「디지털도어록」을 비롯한 '카드식 출입문잠금장치' 전반에 걸쳐 관련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자발적 리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측에 보고해옴

\*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: 사업자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

○ 접수된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, 자발적 리콜 업체와 관련제품의 수량은 각각 총 17개 업체, 약 125만개\*에 달하고,

\* 디지털도어록 110만개 + 현관개폐기 15만개

○ 업체별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은 피해 예방법 안내\*, 시중에 유통 제품에 대해 전용카드 보급 및 해당 제품의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임

\* 교통카드 및 핸드폰 등록을 해제하고, 전용 카드키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음을 알림

○ 향후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교통카드 및 핸드폰 등록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

□ 금번 사례는 최근 교통카드나 핸드폰을 출입문잠금장치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등 보다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

○ 일부 교통카드 등의 식별번호(UID)가 모두 동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비밀번호로 등록한 출입문잠금장치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난 것임

\* 교통카드 및 핸드폰 유심칩의 식별번호(UID)가 중복되어도 교통카드로서 기능함에는 문제 없음

□ 기술표준원은 사업자들의 자발적 리콜내용을 제품안전포털([www.saftykorea.kr](http://www.saftykorea.kr))을 통해 공표 및 홍보\*하고, 이번 리콜 대상제품 이외에도 추가 제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의 제보를 접수할 계획임

\* 교통카드 및 핸드폰 등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등록 해제, 전국민 대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에 등록·사용 자제 등 적극 알림

○ 또한,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수집 및 필요조치 반영 등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 임

○ 추가로, 자발적 리콜 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(약 3개월 후)를 접수하여 사업자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임

**【붙임 1】**

**자발적 리콜 접수현황**

- 총 17개 업체 총 125만개
  - 디지털도어록 : 15개 기업 약 110만개
  - 현관개폐기 : 5개 기업 약 15만개

구 분	제조사	모델명
디지털도어록	(주)대양디엔티	DDP-5000 등
	밀레시스텍(주)	TRIPLE, COMBO 등
	삼성에스엔에스주식회사	RF타입
	(주)씨큐셀린지	EF680K
	(주)아이레보	Smart,MX540 등
	(주)아이빌리브	SNR400,MTR601 등
	(주)인터크리에이티브	M120, S120
	(주)에버넷	갤럭시 스마트 등
	(주)엔터로직	EL/350,EL/250
	(주)엠에스씨엘	GE70C, IN500 등
	(주)하이레버	PTC71,PCC7,UT-II
	(주)하이원플러스	H-1300,1500
	(주)혜강씨큐리티	SMART TAP 등
	(주)코맥스	CDL100R 등
(주)경동원	DL NW-600A 등	
현관기	(주)경동원	UDP-100,HLPC-700등
	삼성에스엔에스주식회사	RF타입
	현대통신주식회사	M-CRRV-0700
	(주)코맥스	DRC-481L/RF1 등
	(주)코콤	KLP-3XXR2 시리즈 등

**【붙임 2】**

**디지털도어록 시장동향**

□ 현황

구 분	내 용
업체수	(주)아이레보, (주)삼성SNS, (주)밀레시스텍 등 32개('09년 기준)
보급규모	- 약 650~700만대('10년 기준, 아파트가 주력) - 가정용 디지털도어록 보급률 48%, 세계1위
주요 공급처	- 개인가정 수요자 70% - 건설업체 20% - 수출 10%
종사자	- 5만 여명 추정 - 제조 1만명, 설치 및 A/S 4만명
단가	- 10만원~50만원(설치비 포함 가격, 다양)

□ 국내시장 규모

- '10년 기준 1,800억원 시장규모, 매년 10~20% 성장, 특히 가정용 디지털 도어록 보급률(48%)은 세계 1위

〈 국내 시장 통계 〉 (단위: 원)

연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
생산액(억원)	875	1,194	1,536	1,750	1,800
생산수(천개) (전년대비 증감, %)	1,074 (-11.3)	1,232 (14.7)	1,001 (-18.8)	848 (-15.3)	879 (3.7)
사업자수(개)	45	29	33	32	30여개

\* 자료출처: 통계청 "광업·제조업통계조사"

□ 수출 규모

〈 디지털도어록 수출량 〉 (단위: 개)

연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규모	19,862	12,928	19,227	35,287	43,560

\* 자료출처: '디지털도어록 수출량', 통계청, 2009.12